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 옹호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빌 드블라시오(Bill deBlasio)입니다. 저는 뉴욕 시민들이 지역 사회와 그 가족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독립적인 공익 옹호관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 셸린(Chirlane)과 저는 브룩클린에 살고 있고 저의 두 아이들 키아라(Chiara)와 단테(Dante)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도시를 사랑합니다. 이 도시야말로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사회가 시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 정부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힘있는 소수의 영향력에 묻혀 버렸습니다.

저는 시 정부가 모든 뉴욕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익 옹호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시와 지역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지난 20여 년 이상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데이빗 던킨스(David Dinkins)를 도와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과 평등과 위하여 일해왔습니다.

또한 주택 도시 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와 함께 뉴욕 시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저는 힐러리 클린턴의 상원 의원에 출마하였을 때, 선거 캠페인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뉴욕 시 발전을 위하여 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수행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이후, 저는 여기 뉴욕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교육 위원회 위원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자녀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의 자녀들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저는 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시 의회에서 저는 일반 복지 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니짜마리 브라운(Nixxmary Brown) 사건 이후로 아동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재건 운동에 힘써왔으며, 푸드 스탬프 신청을 보다 개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주택자 문제에 대한 보다 좋은 해결책을 강구하였으며, 사람들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시 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교사들이 교실을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싸웠고, 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여 뉴욕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모든 뉴욕 시민들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힘썼습니다.

올해의 예산에서, 저는 시 전역에서 16개의 소방서를 폐쇄하고 125개의 교실을 감소하고자 하는 시

정부 안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산이 뉴욕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 시를 더욱 강화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공익 옹호관으로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은 3 가지 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둘째는 뉴욕 시민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셋째는 시 정부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립 학교 학생의 부모로서 저는 양질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익 옹호관으로서 저는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에 다시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무리한 학교 관련 예산 감축을 방지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공익 옹호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 그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소외되고

주목 받지 못하는 계층인 어린이와, 빈민자, 그리고 약자 층을 위한 공익 옹호관이 될 것입니다.

특정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없는 평범한 뉴욕 시민들이나 특별한 이해 계층이 아닌 보통 뉴욕 시민들은 이제 그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공익 옹호관 챔피언이 필요하며 이제 그러한 공익 옹호관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저는 행정부가 일반 투표 또는 여론 수렴 없이 임기 문제를 번복하려고 할 때, 이에 관한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공익 옹호관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7월에 제가 오타(Typo) 문제로 일시적으로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때 저는 우리 시의 민주주의적 절차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후보자 자격은 회복되었으나 이 후에도 행운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공익 옹호관으로써 저는 선거를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뉴욕 시의 선거법을 보다 의미
있고 민주적인 법률안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공의 참여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러한 적극적으로 수행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청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고 무시되고 옆으로
치워졌던 여러분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공익 옹호관으로써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 * * * *